

한의대생 미등록자 81명 제적

교육부 11개 대학 국고지원금 삭감

지난 2일부로 한약조제시험과 관련해 지난5월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갔던 우리학교 한의대생 7백17명중 2학기 최종등록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 81명에 대한 제적이 확정되었다. <관련기사 3면>

가 끝나는 8월31일까지만 해도 1백10명 등록에 불과했지만 이후 교육부가 두번에 걸쳐 미등록시 제적발표와 이의 번복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점점 높아져 갔다.

교육부는 당초 1학기가 끝나는 8월31일에 입학해 연속 2회 유급시 제적 학칙에 의해 제적

위기에 봉착한 한의대생들에게 수업복귀의사가 보일시 학칙개정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31일이 되자 최종등록기한을 9월16일까지로 연장하고 선별제적을 조건으로 학칙개정에 승인했다. 그러나 16일이 되어도 등록률이 저조하자 교육부는 다시 다음날 정오

설된 일반수학2 과목에 한해서 오는 11일에 일반물리 및 실험2, 물리학 및 실험2, 자대에 개설된 물리학 개론에 한해서 오는 14일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이명식교수 도서 기증

정치외교학과를 정년퇴직한 서울캠퍼스 이명식교수는 지난 9월23일 3천1백2권의 책을 기증하였다.

기증된 도서는 단행본이 1천7백52권이며, 학위논문집 및 기타 연찬행록이 1천3백50권이다.

한편 사서과에서는 이명식교수와 같은 개인 도서 기증자를 위해 기증시 소용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사회교육원 수영교실 운영

서울캠퍼스 사회교육원(원장: 김옥경)이 10월1일부터 체내 수영장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학교 교육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취지 아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이번 강좌는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접수는 지난 9월16일부터 사회교육원에서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개통한 마을버스의 증차가 회기동 상인회와의 마찰로 지연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교수 5명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우수논문 전국대학중 3위 차지

지난달 24일 한국과학기술회 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우리학교의 구성자(식영)교수, 박양병(산업공)교수, 한태룡(유전공학)교수, 동석호(의학)교수, 허익(치의)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처가 후원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해당년도에 국내과학기술자가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소속학회의 심사를 거쳐 학회당 1편 기준으로 추천된 논문을 종합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1백10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학교는 전국대학중에서 3번째로 많은 5편의 논문이 선정

되었다. 구성자(식영)교수는 한국조리과학회원으로 '여러가지 조리방법으로 조리된 조리와 돼지고기의 돌연변이원인의 검색'이란 논문으로 이학부에서,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박양병(산업공)교수는 'A Simulation Analysis of Robot Service Movements in FMC'란 논문으로 공학부에서 수상했다. 농수산부에서는 'Nucleotide sequence analysis of a cDNA encoding chloroplast fructose-1,6-bisphosphatase from pea (pisum sativum L.)'이라 논문을 쓴 한국농화학학회 회원 한태룡(유전공학)교수가, 보건부에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의 발현 및 증식에 있어서 X유전자의 역할'로 대한소화기학회

동석호(의학)교수, 'The Origin of Fibroblasts and Their Role in the Early Stages of Horizontal Furcation Defect Healing on the Beagle dog'로 대한치주학회 회원 허익(치의)교수가 수상했다.

언어교육원 도우미 모집

언어교육연구원은 한국어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 생활문화를 알려주고 도와줄 학습도우미를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1백명을 모집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제한없으며 봉사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계속 연장 가능하다.

연구원은 도우미들에게 봉사 확인서를 발급하고 외국어 강좌 30%를 감면해 준다.

수원 언어교육원 개원 준비 활발

수원캠퍼스 부설 언어교육원 개설준비 위원회(위원장: 정석진 기획실장)에서는 '언어교육원(가칭) 개원 설문조사'등을 비롯하여 개원준비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외국어대학장 이숙자(일본)교수, 이진수(영문)교수, 이한규(영문)교수, 다사카(일본)교수, 백운식(전자)교수 등 구성된 언어교육원 개설준비 위원회가 재학생 1천9백2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어학강좌가 우리학교에 개설될 경우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48.6%, 수강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14.5%, 기타 36.9%로 강좌개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강하지 않겠다는 이유에는 교통불편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방학중 학교버스를 증차운행한다면

강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과목에는 TOEIC과 영어회화 선정됐으며 기숙사 개방이 강좌운영과 강좌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68.5%의 학생이 응답했다.

동계방학중에 개원하게 되는 언어교육원은 TOEIC과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어대는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97년 완공되는 신축기숙사 우정원 내에 외국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감을 두어 기숙사내에서 외국어만 사용하게 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을 논의중에 있다.

중간고사로 2주간 쉽다

도서관은 지금 외출중

▼지난주 수요일 저녁,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은 커다란 가방 보따리를 맨 학생들로 진풍경을 연출했다.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주된 화제는 나흘간의 거처, 소위 도서관 학파로 불리며 도서관에 상주하다시피한 이들이 며칠간 정든 도서관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내부 공사때문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된 공사 내용은 승압, 조도, 천정공사로 승압공사의 경우 2백20볼트 전압이 훨씬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데다 대부분의 기기가 2백20볼트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 계획되어온 것이었다. 더불어 높은 천정을 낮게 하고 형광등을 추가로 설치해 좀더 훌륭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 그동안 침침한 불빛아래서 눈비비며 공부하던 경험은 떠올리면 더없이 반갑지만 일인대, 가슴 한편에서는 '왜 긴박하게 두고 개강후에야 공사를 시작하는가?'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는다. 비록 며칠이긴 하나 학내 도서관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고 2학기들이 4학년들은 취업준비에 한시가 아까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분부분 공사를 통해 전체 휴관을 없애려나 다들스런긴 하지만 중간고사 때의 자리경쟁을 생각하면 어떤 풍경을 연출할 것인지 상상만해도 아찔해지기까지 한다. 물론 학교측에도 나름대로 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리과 최봉근 과장에 따르면 원래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도서관이 돌로 지어진 특수한 건물이고 내부장식까지 정교해 계획단계가 길어졌고 결과적으로 공사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부서가 대학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정이 돌발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9천평의 모든 공공 장소이고 대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좀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가뜰이나 부족한 열람시설에 부분 휴관까지 겹쳐 한학기 동안 학생들은 여러모로 불편을 겪는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수정 기자>

21세기 희망찬 경희의 미래
모든 경희인의 정성과 후원으로 완성됩니다

젊은날 고학급과 사천리의 배움터에서 지성을 가꾼 모교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희인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할 때 경희대학교의 이상과 목표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경희발전을 위하여 힘과 지혜로 모인 경희발전기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대당당 완공,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 운동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 기념사업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운동을 전개합니다.
- 등록금 한번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 기타 특별 목적 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
 - 학술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 체육진흥기금
 - 우수교원 및 신입생 유치
 - 도서관 장서 구입

경희발전기금 참여방법

- 일시납부, 분할납부, 단체납, 특정목적기부금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또는 분할납부: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납(예: 직장/지역동문회 등)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연은 개교 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발전기금 납부는 위하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 국민은행 010-01-0618-642
 - 농협 031-01-398711
 - 서울은행 17301-2710209
 - 외환은행 131-13-10336-6
 - 우체국 012336-0025556
 - 평화은행 044-01-001-286
 - 한일은행 070-084146-13-101
 - 직접방문(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참여해 주신 분께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세금감면이 되는 발전기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학교의 중요행사에 초청하며 학교시설, 부속기관 이용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학교 및 동창회 발전 홍보물을 우송합니다.